

민간 항결핵단체의 발자취

—세브란스항결핵회에서 대한결핵협회까지—

김 대 규 / 본 협회 부회장

6·25 동란이 초래한 절박한 결핵사정은 전국의 결핵인들을 결속시켜 범국민적인 민간항결핵단체를 조직케한 촉매제가 되었다.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이 땅에 서양의학이 전래된 이래 1920년대부터 싹튼 항결핵운동이 주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1930년대 후반에 총독부 관제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반하여 대한결핵협회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겨레의 단체였다.

최초의 항결핵단체

한일수호조약 후 1877년 일본해군이 자국 거류민을 위하여 부산에 제생의원(濟生醫院)을 설치하여 환자진료와 종두(種痘)보급을 하고, 1884년 갑신정변때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의사 Horace Newton Allen이 자객의 칼을 맞은 민사의 급위대장 민영익(閔泳翊)을 치료 소생시킴으로서 조정과 민중의 신임을 얻게되자 고종에게 건의하여 1885년 왕립

병원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한 것이 서양의학의 효시였다.

이미 부산 제생의원과 개원 12일만에 광혜원에서 제중원(濟衆院)으로 이름이 바뀐 이들 병원에서 각각 한국인 결핵환자를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조직적인 민간항결핵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28년 10월 26일 캐나다의 선교의사 Sherwood Hall이 해주(海州)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개원하던 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있던 캐나다의 선교의사 Stanly H. Martin(1870-1941)은 최동(崔棟), 이용설(李容高)교수와 함께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교직원과 학생 기타 관계자를 포용하여 한국 최초의 민간항결핵단체인 세브란스항결핵회를 만들었다.

민산해(閔山海)라는 한국명을 가진 Martin교수는 1915년 내한하여 간도(間島)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1919년 간도 용정(龍井)의 만세시위운동시에는 부상자를 정성껏 치료했다. 그리고 1920년 간

도학살때에는 치료활동과 함께 그 참상을 구미 각국에 폭로했으며 1927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전임해서는 주로 결핵환자의 진료와 학생 강의를 담당하고 신문 잡지를 통한 결핵계몽에도 앞장섰다.

1928년 11월 21일과 22일자 동아일보에 세브란스 결핵병방지회장 민산해 이름으로 “폐결핵을 아는 법과 치료법”이라는 계몽기사를 썼으며 1931년 조선의보(朝鮮警報) 제2권 1호에 “폐결핵요법에 대한 현상”이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932년 11월 27일에는 해주읍사무소에서 전조선의 결핵을 없애기 위하여 한규복(韓圭復) 황해도지사, 도경찰부장, 해주군수, 해주읍장을 고문으로 김형익(金衡翼) 박사, 최창문(崔昌文) 씨 등 해주지방유지 20여명이 모여 조선폐병박멸운동후원회를 조직했으며 12월 1일에는 남조선에 오현경(吳玄卿), 김영만(金永萬), 북조선에 김병서(金秉瑞), 서조선에文昌模(文昌模), 지용여(池鎔汝) 등 5명의 결핵계몽선전원을 파견하였는데 그해 한국 최초로 발행된 크리스마스 쉼 선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총독부 주도의 항결핵단체

1936년 4월 7일 조선호텔에서 조선결핵예방협회가 창립되었는데 회장에는 총독부의 정무총감, 부회장은 경무국장, 상무이사는 위생과장이 선출되고 오금선(吳兢善)세브란스의학교장 등 이사 151명의 저명인사를 평의원으로 선임했다.



▲ 1936. 4. 8 동아일보의 조선결핵예방협회 창립을 보도한 기사.

지방조직은 각 도별로 결핵예방협회를 도지사가 주도하여 만들었으며 그 아래 여러군데 부(府)나 군(郡)에서 지부를 설치했다.

첫 사업으로 결핵예방기간을 설정하여 5월 26일부터 3일간 각종 결핵예방선전활동과 결핵상담을 실시하였고 이와같은 결핵예방일 행사는 매년 계속되었다.

그후 1939년 5월 22일 일본에서 황후(皇后)가 50만원(圓)을 하사하여 재단법인 결핵예방회를 만들자 총독부에서는 부랴부랴 재단법인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를 결성하고, 1939년 11월 30일 그 설립을 허가했다.

총독부의 정무총감을 본부장으로 한 이 조직은 일본결핵예방회에 소속된 관제단체로서 총독부와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

국민체력을 주요한 전력자원(戰力資源)으로 생각하고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당시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결핵 퇴치를 위하여 결핵예방회조선지방본부에서는 계몽선전을 강화하고 의정부에 결핵요양원을 착공하였으며 서울 시내 현회현동에 결핵상당소를 위한 건물도 소유했었다. 8·15 광복후 회현동 1가 76-5번지의 건물은 연고권을 인정받아 결핵협회에서 불하받아 입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2년 조선결핵예방협회에서는 학생층에 결핵박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3개도에 조선인, 일본인중학교 1개교씩 결핵예방모범학교를 설치하고 도위생과 및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베르쿨린반응검사, 엑스선검사, 혈침(血沈)검사, 체온체중측정을 3개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했다.

8·15후 우리가 만든 단체

8·15 광복후 결핵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건계 인사들이 박병래(朴秉來)박사를 중심으로 조선결핵예방협회를 조직했으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별다른 활동도 펴 보지 못한 채 6·25 동란을 맞았다.

전쟁으로 결핵이 급격히 만연하자 1952년 군관민(軍官民)의 여러 결핵시설이 모여있던 마산에서는 국립신생결핵요양소의 박용래(朴容來)소장을 회장으로 한국결핵협회가 창립되었다. 회칙을 보

면 사무소는 당분간 마산에 두고 목적사업으로 결핵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결핵에 관한 도서 간행, 결핵사업기관 행정의 개선연구, 회원간의 친목, 결핵계몽사업을 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듀크대학에서 결핵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1953년 9월부터 보건부와 한미재단의 결핵담당관으로 있던 한웅수(韓膺洙)박사와 보건부 만성병과장이던 윤유선(尹裕善)박사, 그리고 기왕에 결핵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서울여의대의 이재규(李在珪)교수와 서울대 의대의 송호성(宋浩星)교수 등이 주동이 되어 통합된 범국민적인 항결핵단체의 조직을 적극 추진하였다.

오랜 투병 끝에 국립마산요양소를 퇴원하여 1953년 7월 1일 보건세계를 창간한 필자는 그 무렵 보건부 한웅수박사의 간곡한 권유로 결핵협회의 창립작업에 보건세계 발행인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범국민적 단일 민간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모든 결핵인의 열망을 결집하여 1953년 11월 6일 서울여건의 세브란스의과대학 소강당에 모인 발기인들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마침내 대한결핵협회를 발족시켰으며 초대회장에는 사회부장관을 지낸 최창순(崔昌順)박사를 선출했다.

11월 7일 서울대 대학원 강당에서 제1회 결핵학술대회가 열리고 오후에 학술대회가 끝나자 그 자리에서 어제의 총회를 속개했으나 성원 미달로 비공식회의로 들어갔는데 대구 제1구호병원에서 결핵으로 요양중인 상이군인 대표 두 사람



▲ 1955 6. 13. 제 2차 결핵학술대회와 결핵협회 제 2차 총회를 마치고 서울대 의대 현관 앞에서 임원과 회원일동, 앞줄 좌로부터 柳光鉉, 文昌模, 趙東秀, 丁佑鎮, 불명, 李在珪, 金敬植, 金起鎬, 尹錫宇, 뒷줄에 韓膺洙, 李玩永, 金南奎, 李燦世, 李性寬, 李孝根, 金澤濟, 朱永在, 李鍾鶴, 李灌熙제씨와 필자가 보인다

이 협회 창립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작업 요법으로 손수 만든 담통과 그것을 팔아서 얻은 이익금을 협회에 기부하면서 130만 결핵환자의 참상을 호소하고 그 해결책을 간절히 애원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는데 장내가 숙연해지고 회장이하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결핵퇴치에 대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다.

창립 직후 보건부(현 서울은행 본점자리) 현관 바로 옆 방 하나에 사무실을 꾸미고 바로 그해 크리스마스 썰 모금사업에 착수하고 12월 1일부터 보건부와 공동으로 제1회 결핵예방주간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비상근으로 한응수 총무부장과 윤석우(尹錫宇) 사업부장이 명콤비

를 이루었고, 필자는 사업과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했다.

초창기 결핵협회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비극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일념에 불타 있었으며 공명심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는 아예 염두에 없었고 이사회가 열리면 무교동 골목의 단골 장국밥집에서 장국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밤 늦게까지 나라와 겨레의 결핵문제를 결정하고 토론했는데 그 열기와 충정은 바로 우리나라 결핵퇴치 운동을 추진한 원동력이 되었다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착오나 추가사항 또는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